

곡성군, 청년문화 공간 활용 소통·정착 돕는다

일하잡센터 구직 원스톱 시스템 1000여명 청년 구직활동 지원 청년창업 공유사무실 운영 등 청년부부대상 결혼축하금 지급

곡성군이 청년센터와 일하잡센터 등 청년문화 공간 활용을 통해 취업교육 강좌와 일자리 지원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다. 또 청년을 채용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도 지급해 청년인구 유입에 주력하는 지원책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6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곡성읍에 문을 연 '비밀언덕25'는 청년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비밀언덕25'에는 곡성군 최초의 청년활동 공간인 '청년센터'와 '일하잡(JOB)센터'가 위치해 있다.

'청년센터'는 스튜디오와 교육장, 세미나실, 마을카페 등 공유공간을 마련해 청

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는 청년센터 전담 매니저를 통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올 상반기에는 취업교육 등 9개 강좌를 운영, 총 223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일하잡(JOB)센터'는 일자리 지원 원스톱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23년부터 '찾아가는 일하잡(JOB)버스'를 운영, 구인·구직자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1개 읍·면과 대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방문, 지금까지 청년 1000여 명의 구직활동을 도왔다.

취창업역량강화교육과 산업체탐방, 동행면접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창출과 지원을 위해 '외국인 일자리 사랑방'도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창업 공유사무실'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무료로 사무공간과 회의실



곡성군 청년들이 최근 곡성 청년센터에서 열린 2024년 곡성군 취·창업 특강에서 취업강좌를 듣고 있다.

들을 사용할 수 있고 올해는 3명의 청년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향후 빈상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창업 공유사무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3개월 근무 시 '청년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는 1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월 10만원의 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부부에게는 '결혼 축하금'도 지원한다.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김대영 기자**



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운영
나주시, 11월29일까지

나주시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지원단 운영에 나섰다. 오는 11월 29일까지 20회 운영하며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농업실현과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지도록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11월 29일까지 20회에 걸쳐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 66명을 대상으로 영농현장 진단·코칭, 품목별 영농 기술 교육 등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청년세대의 농업유입 확대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219명의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최장 3년간·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 영농초기 소득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청년후계농업인으로 선발되면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각종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융자(고정 1.5%·5년 거치 20년 상환) 받을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지원단 운영이 지역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들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화순군, 12월까지 실시

화순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등 13종의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서 수집한 65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한다.

화순군은 하반기 확인 조사 대상자로 통보된 997건(1703명)에 대해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며,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 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긴급복지 등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복지 제도로 연계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 수당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의 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신심 사회복지과장은 "하반기 확인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수급 자격을 관리해 복지재정의 누수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며 "자격 변동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열린다 24일부터 27일까지

곡성군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제24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를 개최한다.

6일 곡성군에 따르면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어린이들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지는 개막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개막 퍼레이드는 24일 오후 4시 삼전강기차마을 중앙광장에서 펼쳐진다.

지역 및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직접 꾸민 퍼레이드로 축제의 흥을 한껏 돋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주요 행사로는 25일에 '곡성심청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와 '2025년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공식 포스터 공모전'이 열린다.

포스터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작품은 내년도 축제 포스터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다양한 공연이 매일 선보인다.

24일에는 '캐리, 엘리와 함께하는 싱어롱 쇼'와 '더 디즈니 프린세스 콘서트'가 25일에는 '신비아파트', 26일에는 '로보카폴리'와 어린이 명작 뮤지컬 '우리가 죽어' 27일에는 '베베핀 해피 콘서트'와 참여형 아동극 '오즈를 찾아서'가 공연된다.

매일 매직버블과 별론 서커스 쇼가 펼쳐져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26일에는 '리즈 2000콘서트'가 열려 윤민수, 조성모, 민경훈, 왁스, 서영은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으로 엄마 아빠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곡성군 홍보대사인 진시몬, 파스텔 걸스가 출연하는 '심청효콘서트'와 심청의 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청강창극단의 '효녀청' 공연이 예정돼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차마을 전체를 어린이 놀이터로 꾸며 아이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지난 2일 담양군 수북면 복지기동대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노인가구를 방문해 도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수북면 복지기동대, 현장 봉사활동

담양군 수북면 복지기동대(대장 전채우)가 지난 2일 군 복지기동대와 함께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노인가구를 방문해 복지기동대의 날 현장 활동을 추진했다.

6일 담양군 수북면 복지기동대에 따르면 이날 전채우 대장을 비롯한 10명의 복지기동대원은 어르신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염된 벽지를 모두 제거하고 친환경 방수페인트 도색작업을 추진했다.

전채우 복지기동대장은 "작은 손길들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기동대장으로서 복지사각지대 없는 수북면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화순 파크골프장, 무료 시범운영

12일부터 10월 말일까지

화순군은 12일부터 10월 한 달간 화순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10월 한 달 동안 화순 관내 파크골프장의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10월 이후 유료로 전환 시 화순파크골프장(87홀) 입장료는 화순군민 2500원, 관외 이용객 8000원이며 능주파크골프장(18홀) 입

장료는 화순군민 1500원, 관외 이용객 6000원이다.

다만 관외 이용객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의 50%를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반환 지급된다.

무료 시범 운영 동안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만 나뉘며 오전·오후 각각 온라인 예약으로 80명(20팀), 현장 접수로 120명(30팀)이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에는 초기 잔

다.

조용상 수북면장은 "마침 도움이 꼭 필요했던 어르신 덕에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재능기부를 해주신 복지기동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북면 복지기동대는 주거 취약가구를 발굴해 도배, 보일러 교체,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디활착 관리 등을 위해 휴장한다.

화순파크골프장은 정규 코스 81홀과 별도의 연습 코스 6홀을 포함해 총 87홀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향후 공인 구장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개장 이후 다양한 파크골프 대회와 관련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무료 시범 운영을 통해 화순 파크골프장의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화순군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년층의 건강한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